

「안전보장관련법안에 반대하는 메이지가쿠인유지의 성명」

우리 메이지가쿠인은 1945년 여름의 패전에 이르기까지 국가체제에 추종하고 그 전쟁에 협력하여 많은 학생들을 죽음의 전쟁터로 내몬, 잘못된 과거의 죄책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깊이 반성하여 패전 50주년이 되는 1995년 학원장 이름으로 「메이지가쿠인의 전쟁책임·전후책임 고백」을 발표하고 미래의 진정한 평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우리들 메이지가쿠인 유지는 20년전에 선배들이 다짐하였던 고백을 계승하여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보상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전후 시대 일본의 책임을 자각하며 현재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안전보장관련법안(이하 이 법안)에 대하여 반대 의사를 여기에 표명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기본적인 목적은 지금까지 헌법위반이라고 간주되어왔던 「집단적자위권」을 합헌이라고 강변 함으로서 세계각지에서 자위대로 하여금 미군의 후방지원, 즉 전쟁의 병참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다수 의석에 의지하여 헌법위반임이 분명한 이 법안의 강행체결을 노리고 있습니다. 일본국이 열린 대화를 통한 민주적 합의를 지향하는 나라이기를 강력히 바랍니다. 그 동안도 소홀히 취급되어 왔던 헌법의 평화주의가 더욱 무력화되어 일본이 다시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할 존재가 될 수도 있는 상황 전개를 우리는 그대로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일본국헌법의 평화주의를 우리 손으로 되찾고 그것을 통한 진정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법안에 절대 반대하는 바입니다.